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장 권호덕 박사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14가길 45-1
http://www.sb.ac.kr / E-mail : sb0691@hanmail.net
Tel : 02)845-7711 Fax : 02)844-7711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신문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이사장 한동숙 목사 총장 박형용 박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1-11(중동38-1)
TEL: 031. 270.6000 FAX: 031.270.6060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85호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문광부 승인, 한기총 오는 27일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정관 논란 오해 없길" 당부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정관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오해 없길 당부하고, 오는 27일 전관에 의해서 정기총회로 정상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한기총의 정관승인 문제로 이영훈 목사는 대표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주무관청이 한기총 정관을 승인하기 전 이영훈 목사가 되찾아갔고, 이것이 정관을 '자진 철회' 한 것 아니냐며 대표회장 자격을 운운하며 한기총의 미래는 없다는 등 시시비비로 진통을 겪어오다 한기총 정관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영훈 목사에 대한 자격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5 신년하례예배를 개최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해"라며 "교회가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살피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모은다면 사랑, 희생, 섬김, 나눔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한국교회 전체가 강력한 말씀운동을 바탕으로 참된 회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성령 충만을 통한 능력 있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희망'을 한국 사회와 온 세계에 전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또한 금년 계획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한기총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 "한기총이 중심이 되어 부활절 연합예배와 금권선거금지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영적부흥 및 대각성 운동과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운동 및 선교기금 1% 적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한국 사회의 소외돼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쓰겠다고 말하고 다문화가정과 탈북자 가정,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고아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들, 노숙인들을 돕는데 한국교계의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부 조찬에서 증경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환영인사, 다문화북한이탈가정위원장 정해송 목사의 조찬기도, 증경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지도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한기총의 영예를 드높이고 한국교회를 이끌며 봉사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는 서기 황덕광 목사의 사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신년사, 명예회장 하태조장로의 대표기도, 명예회장 오관석 목사의 설교, 직전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증경대표회장 지덕 목사, 최성규 목사, 이용규 목사, 엄신형 목사, 이광선 목사,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 이강평 목사의 순으로 신년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아동학대 폭행 및 토사물도 먹여 경찰 확인

보육교사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보육 공포불안 전국으로 확산"

인천 어린이 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 '보육공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직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영유아는 학대를 받아도 상황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세밀하게 관찰을 필요가 있고 특히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 방식이든 신호를 보낸다 "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1) 아이가 어린이 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나... 2) 보지 못한 상처나 엉덩이 등 생기기 힘든 부위에 상처나 멍이 있는가... 3) 상처나 멍에 대한 아이의 설명이 여러 번 물어도 일치하나... 4) 잇자국, 손가락이나 벨트 모양의 멍 자국이 있나... 5) 일어설 수 없는 아이가 다리를 다치지는 않았나... 등이다. 특히 아이가 심하게 떼를 쓰며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하면 일단 보육시설 분위기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이성호 서장은 이날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찰은 추가 폭행을 2건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

2015. 회개하고 일어나자

주후 201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올해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한 해를 기준해, 선교 130주년이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130년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다. 선교 100주년 때 한국교회는 이미 세계 10대 교회들 중 여섯 교회가 한국에 있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역시 그 때를 고비로 한국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쇠퇴의 속도는 부흥의 속도보다 더 빨라서 약 30년 후에는 교인수가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95-2005년 사이에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이들이 약 6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5년 이후 지금까지는 그 이상의 숫자 곱 100만 명이 줄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교회는 지금 히스기야 현상을 겪고 있다. 히스기야 왕 통치의 전후반기 현상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쇠퇴의 현상과 비슷하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6.25와 같은 엄청난 국난을 겪으면서도 한국교회는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고 신흥제국인 바벨론 나라의 사절들이 그의 질병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는 영광(?)을 얻은 후부터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과 방불하게 한국교회가 그 길을 행하고 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위를 보고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20:18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왕하 20:17,18)고 예언하였다. 우리는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도 악한 왕이 된 것과 그의 사후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급속하게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히스기야 왕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히스기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이런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한국교회는 지금 히스기야 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회개하고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0년 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세대에서 다 탕진하고 끝내버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출세와 부귀를 신으로 삼는 불신자들처럼 타락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책 없이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회개하고 일어나자. 골고다로 행하시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먼저 회개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일어나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 기도하자.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祝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표어 :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것을 힘써지키라(엡4:3)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칠 박사 천복교회
경남신학원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진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회의록부서기 박영석 목사 예본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본 합동보수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개 교회의 가입을 언제든지 한영합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0-168 H.P 010-5325-389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한보협, 신년 축하 메시지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복잡다난했던 갑오년은 어느 덧 영겁의 세계로 사라지고,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무사히 희망찬 새 해를 맞이하게 됨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해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땅의 온 누리에 임하사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안정이 되고,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 남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재건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일제의 학정에서 해방된 지가 금년 70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금년에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를 합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한국교회의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던 과거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한국교회가 새로 거듭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계에 여러 신문사와 언론기관이 있지만, 지저스타임즈는 우리 보수교단협의회와 뜻을 같이하여 WCC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한국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앞으로 지저스 타임즈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교회에 참된 복음의 나팔을 불어 어두운 한국교계의 등불이 되고 한국교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데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지저스 타임즈가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한국교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론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새해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 범 성 목사

■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2015년 한국교회연합 신년메시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3 1:2)

2015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에 찬 새해에 한국교회연합 산하 회원교단과 단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새 아침에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는 말씀처럼 구태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부조화와 불평등의 질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취하는 동안 못 가진 자는 가진 것 마저 빼앗기는 구조적 악순환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장애와 차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통과 좌절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새해를 맞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 성장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교구인 이웃과 세상은 어느새 높은 담이 가로막히고 복음적 나눔과 소통마저 단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세기동안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제2부흥을 외치기 전에 철저한 회개와 영적 · 도덕적 각성과 갱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가 종교와 사상, 피부색, 빈부의 차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희생과 섬김의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 한국교회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곧 교회 일치와 연합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과, 민족복음화 사명,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섬김을 다하는 사역에 변함없이 발 벗고 나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기득권도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힘,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새날을 맞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5년 새해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신년메시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2015년 소망의 새해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희망' 을 한국 사회와 온 세계에 전합니다.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금년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통일의 길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고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혼란과 혼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영적지도력을 상실하여 성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표류하게 한 것은 통탄하며 회개할 일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우리 사회와 국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철저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하나된 목소리로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마 5:37)라고 말하여, 대정부 대사회를 향한 예언자적 사명 역시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손 붙잡고 울어주며 작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향한 사랑과 희망 나눔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계획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통한 영적대각성운동입니다. 모두가 사랑, 희생, 섬김, 나눔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 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망으로 열어갈 2015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앞에 허락하신 사명과 책임을 깨닫고, 한국교회와 사회, 국가와 그리고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새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 세기총 장석진 대표회장

세기총 장석진 대표회장 신년메시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들과 밝지 못한 일들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힘찬 내일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 아침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논란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개와 성찰을 수반한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구원의 산성으로 거듭나 우리 민족을 희망과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에도 지구촌에서는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들이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죽음의 문화가 소멸되고, 살림의 문화가 충만하여 사람이 사는 세상, 더불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적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201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사역으로, 남북한 간의 증오와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새 기운이 움틀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로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화해의 사역이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한반도 분단의 가로막힌 담장마저 걷어냄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은총과 축복이 넘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새해 아침에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최고 품질의 기능성 대나무 명품 마루! 헤스코 G-마루!


특허 및 시험성적서

건강을 생각한 과학마루...헤스코 G-마루는
과학적 환경기술로 생산되는
대나무 원목마루의 명품브랜드입니다.



특수한 삼투기술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의 결합

▶환경성 면역력저하로 천식, 피부병, 감기 등을 유발시키는 폼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환경호르몬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과학마루!

▶내구성 특허기술로 생산된 헤스코 G-마루는 마루원목에 함유된 수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휘거나 뒤틀림의 현상이 없고, 방충 및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안전성 불이 잘 붙지 않는 천연방염재를 원목에 함습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 마루입니다.

▶경제성 여름에는 습도가 적어 끈적임이 없고 시원하며, 겨울에는 열전도율이 높고 보온성이 뛰어나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기능성 대나무에 함유된 음이온과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대나무 원목에 천연음이온을 함습시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특허기술로 천연기능성재료를 삼투시켜 인체에 가장 이로운 5~20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을 선택적으로 방사,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를 원활히 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과학적 환경마루입니다.

〈온돌용〉 〈상업용〉

사용범위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학교, 유치원, 요양원, 호텔, 체육관, 사무실 등 상담문의 : (주)헤스코 ☎1577-0671 E-mail : hesko@naver.com www.hesko.co.kr

■ 2015년 한보협 교계지도자 신년하례예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악법저지를 위해 사단법인과 연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지난 1월 9일(금) 오후 1시~3시까지 한국기독교백주년 1층 소강당에서 200여명의 교계지도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2015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전임 교단장 공로패와 신임, 가입 교단장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60개 가입교단을 목표로 단합된 한보협, 발전하는 한보협, 희망찬 새해를 맞아 비전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다.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협의회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의 인도로 고병수 목사(기독교한국성결회 감독)가 기도를 하고, 오현관 목사(대한예수교 오순절성회 총무)가 성경(롬8:1~11)을 봉독하고, 남상문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개혁)총회장)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남 목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과 능력 있는 삶, 겸손한 삶, 희생하는 삶, 사명감당을 위한 삶과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성전으로 채워져 가는 새로운 한해가 되기를 축원' 했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로 1)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해 김 암 목사(협의회 법인이사), 2) 본 협의회 발전과 단체를 위해 손현근 목사(예장, 합동보수총회 총회장), 3)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신한철 목사(예장, 합동제일총회 총회장)가 기도하고, 김준희 목사(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 총무)가 헌금기도를 했다.



한보협 이 대표회장은 1. 전임 교단장 : 권순영 목사(한국기독교영성총연합회증경 대표회장), 증경총회장 이창희 목사(예장합동보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2. 신임 가입 교단장 : 서영웅 목사(퓨리탄장로회 한국총회 총회장), 박승주 목사(새일꾼 선교회 회장), 곽영민 목사(예장에녹총회 총회장), 황요셉 목사(예장연합총회 총회장), 김길중 목사(한국메시아닉교회 토라공동체연합회 회장), 신오성 목사(예장총회영신 총회장), 김길성 목사(대한기독교영성총연합회 대표회장), 손형근 목사(예장합동보수총회장), 등에게 각각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신년인사에서 '지난 한해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고 사건들이 많았으며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한국교회에는 여러 이단과 WCC 등으로 인하여 혼란과 침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국민들과 한국 기독교는 묵은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회장의 목표는 2016년 2월까지 임기동안 보수교단과 뜻을 같이하며 가입을 원하는 교단장들을 만나 본 협의회 성장 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은 보수원형을 찾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며, 게다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등 악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사단법인과 연대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본 협의회 상임고문 지왕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협의회 증경대표회장 남성운 목사의 식사기도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교재를 이룬 후 각기 발길을 돌렸다.

■ 예장대신(석수)총회, 올림픽 파크텔에서 신년하례회

화합과 발전으로 성장하는 대신석수총회,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지난 해 12월 23일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소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학교중심으로 설립되어진 예장대신석수총회(총회장 황원찬)가 2015년 1월 2일(금) 오전11시 30분 올림픽파크텔19층에서 총회 설립 후 첫 번째 시무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총회서기 이형근 목사의 인도로 신년하례예배가 진행되어 부총회장 곽순종 목사가 기도하고 총회장 황원찬 목사(본대학원대학교 총장)는 에베소서 5:15~17절을 인용 "세월을 아끼라" 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총무 노지훈 목사의 광고 후 총회장 황원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황원찬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세월을 아끼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며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장 소중한 지혜라고 했다. 따라서 세월은 한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세속적인시간 속에서 때로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후회하지만, 세속적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 세속 속에 시간을 통한 삶을 개척을 하지만 사실 뭐가 무엇인지 뭐가 소경인지 헤아리지 못한다고 했다.



전1: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가 다 헛되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이 중요한 고백이 된다고 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많은 수고, 이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같이 헛되다(전1:14)고 했다.

그러므로 이 세속적인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에게 후회도 되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24시간을 정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된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의미를 찾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의미를 찾는 것인가 이것을 사도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했다. 황 총회장은 또한 화합과 성장으로 발전하는 석수총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로 총회장 황원찬 목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총회 임원들과 각 노회장 및 임원들을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고 이어 임원회를 통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과 총회가 성장되고 발전하는데 의논하고 동대학원과 총회운영을 위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본 대학원대학교 M.Div 졸업생들의 진로 문제와 총회의 위상과 발전을 위하여 임원들이 앞장서는 자세로 총회장을 중심으로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예장대신석수총회가 출범하고 첫해를 맞아 2015 신년하례회를 갖은 석수총회는 오랜 핍박과 어려운 시련들을 딛고 일어서서 2015년 새해를 맞아 큰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힘차게 비상했다. 대신(석수)총회는 평양신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보수주의의 신앙을 표방하여 온 교단으로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


대신석수 총회장 황원찬 목사

따라서 황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외세인 이단문제, WCC의 문제, 보수주의신학 사수의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교단과 대신대학원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우려 나가겠다는 다짐과 총회 임원과 각 노회장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한국교회의 리더의 사명을 다해 나가자며 다짐했다.

■ 한성노회 신년감사예배

한성노회 예닮교회에서 신년감사예배 드려

예장합동 한성노회(노회장 차종율 목사)는 지난 6일,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예닮교회(서상국 목사)에서 노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집례는 서상국 목사(부노회장)가 인도, 추평호 장로(부노회장)의 기도, 오호영 목사(서기)의 성경봉독하고, 초청강사로 나선 유태영 목사(전주 서광교회)가 「우리의 바램」 (행6: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윤병철 목사(부서기)의 인도로 목회 중에 노회원들의 합심 기도가 필요한 교회들의 기도제목을 받았다.

1. 서상국 목사(예닮교회)는 교회 수리 과정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병원 입원 24일간 있었으나 함께 기도해 줘서 고맙다 인사를, 2. 김승철 목사(새서울교회)는 '총신100만인 기도후원회' 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며, 참석한 노회원 모두에게 벽걸이 시계를 선물했다. 3. 이광진 목사(크리스찬교회)는 이도숙 사모의 폐암 말기 진단(아주대, 서울대 병원)으로 3개월 수명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항암 주사 50회 이상 맞고 있는 중이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은 모든 분들의 기도덕분이라며 기도의 줄 놓지 말기를 당부했다.

4. 이강호 목사(늘사랑교회)는 강릉 베데스다기도원 주변의 택지 분양 건에 사기를 당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라면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선교비로 후원하였던 훌륭한 분인데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5. 김성경 목사(월드크리스천교회)는 교회부지에 도로가 인접해 있지 않아 맘고생이 많았었는데, 도시개발위원회와 구청으로부터 도로허가를 받게 되었다며 감사를 했다.

그 밖의 여러 기도제목과 함께 노회원들이 합심 기도 시간을 가졌다.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노회장 차종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소진우 목사 2013년-2015년 성회 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02) 934-1232(대)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극동방송 컬럼리스트
*CBS TV 컬럼리스트
*지저스타임즈 사장
*JTS TV, 신문 컬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2013년 1월 일정
1~3 과천 예회(노영수 목사)
7~9 장암성결교회(강석전 목사)
10 강남 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길신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 기도원(우정재 목사)
21~23 참좋은교회(기갑상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월 일정
1 한얼산 기도원(이영금 원장)
4~7 한림산 기도원(이옥란 원장)
11~14 광은 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 기도원(우정재 원장)
18~21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멜산 기도원(임예제 원장)
22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5~27 비전교회(조정현 목사)

3월 일정
4~8 노회 선교지 방문
11~14 퇴계원 제일교회
12~30 봄철 축복 대심방

4월 일정
1~3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효균 원장)
14 천보산 기도원(우정재 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황 목사)

5월 일정
3 C채널 TV 예배
6~8 참사랑 교회(강신조 목사)
11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13~15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7 갈멜산 기도원(임예제 원장)
19~6.1 2주연속특별심야 기도대성회

6월 일정
3~6 한교연합수련회
10~13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4 오산리금식기도원(국해현 목사)
17~19 나눔애교회(최종덕 목사)
20~21 국내미자립교회순방
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7월 일정
1~3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8~10 성산교회(신승종 목사)
15~19 선교지신학교여름 특강
29~31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

8월 일정
2 한얼산 기도원(이영금 원장)
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4 천보산 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감림산 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9월 일정
9월 일정은 추석연휴 및 명절 앞뒤에 해외방문 및 현지집회 일정이 있는 관계로 별도 집회일정을 올리지 않습니다.

10월 일정
4 노회선교위원회예배
7 대신미디어예배
벧엘교회
7-9 정기노회
14-15 부흥사연수원특강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 인천성산교회
21-23 선교사파송예배
27 판암장로교회
28-30

11월 일정
4-9 해외 선교지 방문
11-13 행복한교회(박성일 목사)
14 안양 갈멜산기도원 철야집회
18-20 창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
21-22 부흥사연수원강의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7 서광교회(김창수 목사)

12월 일정
2~15 2주연속 부흥회(예복교회)
16-19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산상기도

2014년 1월 일정
1-3 모란순복음교회(양병열목사)
4 능곡명성교회(송한철목사)
6~8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3~16 목양장로교회(성실환목사)
1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월 일정
3-6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2 인천은혜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19 대구열린문교회
21 갈멜산기도원 금요철야
23 성화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3월 일정
봄철 축복 대 심방
3-5 원천교회(최성근목사)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월 일정
7-10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배성은 목사)
21-22 정기노회
28-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월 일정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2-14 나눔애교회(최종덕)
19-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31 특별심야대성회(예복교회)

6월 일정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3 선교사집중세미나
16-19 벧엘선교센터(서형범 원장)
23-27 선교지방문

7월 일정
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7-10 에덴교회(양화옥 목사)
14-17 모리아기도원(조선희 원장)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8월 일정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6 한얼산기도운(이영금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21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5-28 천문기원(최정숙 원장)

9월 일정
1-2 중부연합성회
3 성소기도원(박정연 원장)
4-5 열부선세미나
14-17 성산교회(유경춘 목사)
18 목회자영성원
22 은혜교회(정순출 목사)
22-25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5 안성명성수양관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2 노회선교지방문

10월 일정
6-8 천호성결교회(여성삼 목사)
12 부천성문교회(이종래 목사)
13 14 정기노회
14-16 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20-23 인천새힘교회(강규석 목사)
2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7-29 에덴교회(이원종 목사)

11월 일정
3-6 여수서광교회(배영길 목사)
10-14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7-19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포천제일교회(권혁주 목사)

12월 일정
1-3 성은교회
7-10 김종복목사초청성막세미나 (예복교회)
8 경기북노회연합성회
15-19 필리핀사역자컨버런스
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31 신년축복을위한산상기도

2015년 1월 일정
2 한얼산기도원철야(이영금원장)
4 안양광은교회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1 모현제일교회
12-14 온양풍기교회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길신교회
25-28 답십리침례교회
31 갈멜산 기도원(임예제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새해 새소망
2015년 새 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백배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15년에 한마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의식이 깨어있다 함은 살아있다는 말이다. 의식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 사진 촬영을 할 때 렌즈의 초점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추어지면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초점이 잘 맞추어지지 않은 사진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식의 초점이 분명해야한다.

목회자가 영혼의 목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의 목적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며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교회, 그 기업,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목회자는 목회의식이,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의식이 분명하고 투철해야 한다. 며칠 전 모 기관장의 이임예배가 있었는데 그분의 인사말이 퍽 인상적이었다.

"자신의 임재 기간동안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여러 관련자들의 협조로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고 "이제 그 진 빚을 되돌려 주어야 할 새로운 의무를 지고 떠난다." 라는 말을 남겼다. 가식없이 순박해보였다. 세상 사람들은 잘되면 큰소리를 친다. 잘되면 교만해지고 다 끝난 줄로 안다.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다 된 줄로 알면 안된다.


언론부흥사회 총재 이효은 목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 의식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 할 때 자만하여 비판과 독선으로 군림하게 된다. 남보다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서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청계천에서 흐르는 물은 나서지도 않고 서로 비판도 안하며 겸손하게 흐르고 있다. 사람이 손을 대어준 만큼 흐르고 있다.

지하 시궁창에서도 말없이 흘렀고 곱게 만들어준 수로를 따라 지금도 말없이 흐르고 있다. 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도 흘러가야 할 곳으로 말없이 흘러가고 있는 청계천의 물이 대답하는 듯싶다. 코(북한)앞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며 위협하고 있다.

우리(교회)의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나라이 민족의 할 일이 무엇인가? 2015년에는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힘을 모으며, 할 일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찌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찌니라' (잠언 8: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광림교회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2015 비전〉

"우리가 만든 뮤지컬로 하나님 만나 보세요!"



2015년 광림교회 교회학교의 표어는 'Light,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라' 다. 따라서 2015년 중고등부 겨울수련회인 <2015 VISION>도 그에 걸맞게 새로운 빛의 향연이 되도록 '말씀(Power)과 문화(Joy)와 예배(Thanks)'라는 날개를 달았다.

올해 비전 행사는 광림교회 장천아트홀에서 1월 23~25일 사흘에 걸쳐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하여 강연과 뮤지컬과 춤, 노래 악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강하고 담대하라(여호수와 1:6)' 는 말씀으로, 무한도전의 재미를 능가하고, 아바타의 감동을 뛰어넘는 청소년 크리스천 문화 파워를 전파하는 향연의 장이다.

1월 4일 중등1부 3학년 1반 김영진 교사가 이끄는 8명의 중학생들을 만나서 <2015 비전> 행사에 대한 기대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년에 콰이어 집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이소연)

"작년 집회 후 잠들기 전에 친구들과 방에서 오순도순 나눈 이야기들이 생각나요." (이선호) "올해 교회 본당에서 열린다고 해서 처음에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뮤지컬을 준비하다 보니 상황은 작년과 다르지만 이 새로운 비전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서 은혜의 통로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박나영, 중등2부)

또 24일 장천홀에서 열리는 중고등부 연합 뮤지컬 '가스펠(Godspell)' 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도 만났다. 고등부 3명과 중등부 7명이 출연하는 이 뮤지컬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기획했다. "마태복음의 창녀 역할을 맡았어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캐릭터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나같이 낮은 사람들을 찾고 사랑하시는구나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함누리, 고등2부).

뮤지컬팀은 '묵상 토크' 라는 카톡방을 열어 주말에 각자 체험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번 <2015년 비전> 행사는 중고등부가 '거국적으로' 함께하고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또 다른 의미의 열린 문화 향연이 될 것이다.

■ 춥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내복 전달 – 이기학 기자

교도소 선교는 때론 비참할 때도 있지만 중단할 수 없는 사역!



교도소 내복 보내기를 할 때마다 듣는 소리는 목사님도 참 한심하다는 것이다. "왜 죄를 지어 교도소 있는 놈들에게 사랑을 주고 추위에 고생을 하게 내버려 두지 내복까지 주고 있냐" 는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놈들이기에 고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고 이 추운 겨울에 내복을 보내는 이유는 교도소 담 장안에 있는 수용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영혼들이고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들의 영혼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복을 전하는 것이다. 만약에 죄가 있다고 외면하고 더 힘들게 한다면 그들이 출소하면 우리의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올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군다나 목사님들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을 외면하는 소리를 할 때 솔직히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는 누구인가? 죄인이요 괴수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잘난 맛에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영혼들 밖에 안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누굴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일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며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 선교를 하다보면 참으로 비참할 때가 종종 있다. 교도소 선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하면 나를 한 번 더 본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너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 전과자 이기학 목사입니다. 천국은 전과자만 들어갑니다.

전과자는 죄 값을 치를 사람들이기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저는 전과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도소 선교를 위해 기도와 사랑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멀리한다. 그리고 강단과 성도들에게 죄인을 사랑하라고 한다. 참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교도소 내복 보내기를 2년간 중단하였다. 그런데 올 해 교도소 소장이 부탁이 왔다.

목사님! 힘든 수용자들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 해 또 교도소 내복 보내기를 시작했다. 강변교회의 허태성 목사와 이름도 밝히지 않는 성도님께서 도와주셨고, 이름도 빛도 없이 몇 분이 도와주시어 힘들게 교도소에 기증했다.

한편으로 너무나 아픈 사역이 교도소 선교 사역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역이기에 2015년도에도 할 것이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교정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기도부탁 드린다. 그리고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교도소에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와 세상을 그만큼 밝아진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선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 CTS, 가족뮤지컬'명탐정 셜록홈즈'기획공연

내달 8일 까지 CTS 아트홀에서 열려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기독문화 전파사역의 일환으로 가족뮤지컬 '명탐정 셜록홈즈' 를 1월 20일(월)부터 2월 8일(일)까지 CTS아트홀에서 기획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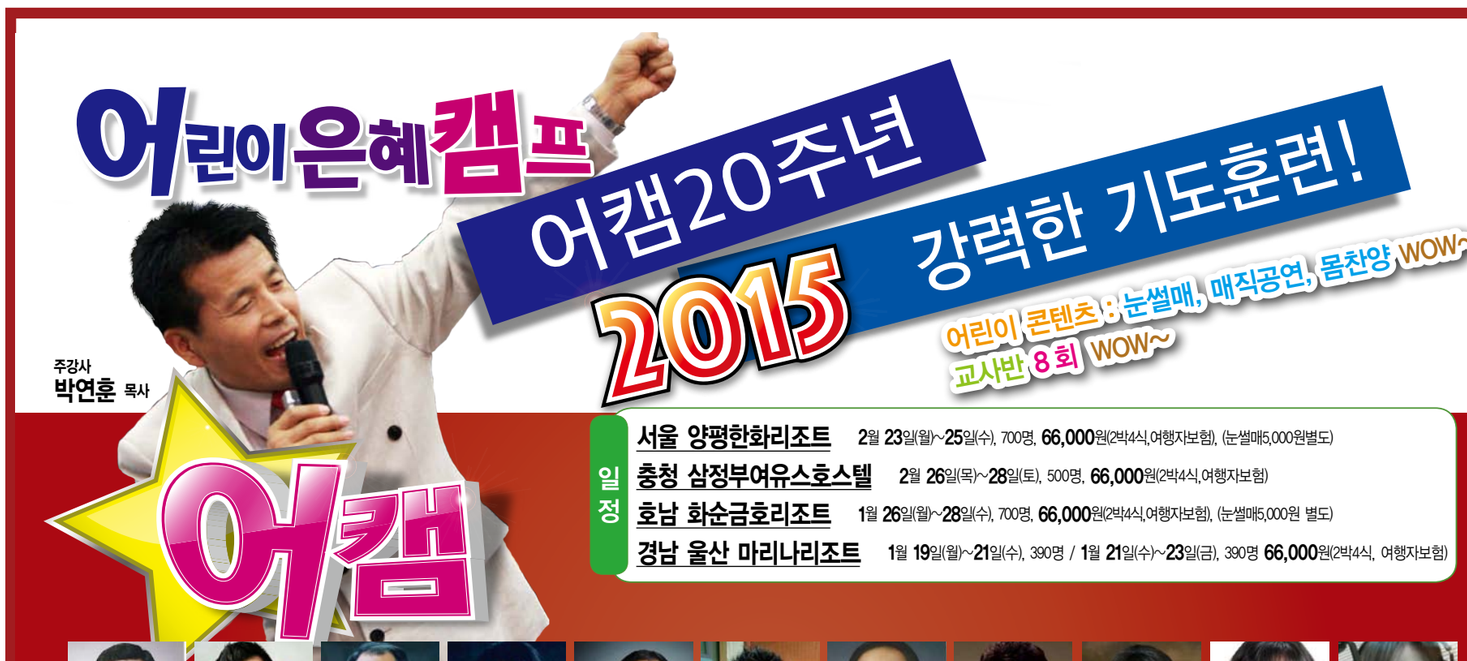
가족뮤지컬 '명탐정 셜록홈즈' 는 명탐정 홈즈와 왓슨이 흥미진진하게 해결해 나가는 세계적인 추리소설 '셜록홈즈' 시리즈 중 '붉은 머리 연맹' 과 '거지 사내의 비밀' 을 각색하여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 구성에 재미와 스릴을 더한 뮤지컬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재탄생 되었다.

CTS기획공연 담당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된 명탐정 셜록홈즈는 아이들이 공연 내내 사건을 추리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 상상력과 관찰력, 사고력을 키워주는 웃음과 교훈이 있다" 며 "긴장감 있는 음악과 드로잉 쇼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어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오후5시(토,일요일 오후2시 · 4시, 월요일 공연없음) CTS아트홀에서 열리며 인터파크 티켓(1544-1555)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 예장합동보수 2015년 신년하례감사예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합동보수로 성장하는 2015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엡4:3)는 주제로 1월 15일(목) 오후 1: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소재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시무)에서 2015년 신년하례감사예배를 드린 후 증경총회장, 총회장, 임원 및 노회장들로 새해 덕담을 나누고 격려하며 인사했다.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성광교회담임)가 1부 예배를 인도하고 총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가 성경봉독(엡4:1~6)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은 '하나가 될 때에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로 넘치게 된다면서 총회는 물론 총회와 노회, 가정도 하나가 돼야 발전이 있고 화목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자고 했다.

또한 목회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목회를 바로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했다. 엡2:18절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아홉가지 은사, 아홉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로 직분을 주셨다면서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는 동역자로 힘써 일하자고 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

또한 구로지역 전철 5분 거리 내에 총회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아울러 이규필 총회장은 총회와 노회 동역자들을 섬기는데 큰 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전원교회와 전원마을 건립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인내를 갖고 기도하면서 성령충만으로 교회와 가정,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노회와 총회가 성장하는 한 해 승리하는 2015년이 되자며 기원했다. 이어 회계 송인섭 장로의 헌금기도를, 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후 증경총회장 윤석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서기 임상국 목사의 사회로 2부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김국태 목사(한중노회장), 2. 한국교회와 시계선교를 위해서 박영석 목사(서울노회장), 3. 총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곽유신 목사(경남노회장), 4. 노회와 전국교회를 위해서 오득환 목사(서인증경노회장), 5. 총회임원과 노회임원을 위해 김상대 목사(대구증경노회장), 6. 동천교회를 위해 유기순 목사(경남노회서기) 등이 각각 기도했다.

■ 홍항표 목사"사도영성"출판기념 감사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회복에 목적을 두고...

사도영성 신학원 학장 홍항표 목사는 지난 29일 저녁 7시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도영성"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발간한, 출판기념감사예배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8길 사도영성신학원에서 많은 동역자,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교학처장 홍성익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해되어 박용숙 목사(에조브선교회장)가 기도를, 양미상 목사(교무과장)가 감사인사를, 회장 김동현의 성경(롬 9:1~3)을 봉독하고, 박용숙 목사(우슬초)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총회장 김진수 목사(경찰청 한국경목총회)는 "바울의 소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은 "한국교회를 깨우치는 귀한 책 '사도영성' 을 발간한 홍항표 목사와 출판을 위해 수고한 지인들을 향해 축복했다" 이어 사도영성신학원 재학생들은 "십자가의 전달자" 란 교가를 열창하고 헌금시간을 가졌다.

학장 홍항표 목사는 출간된 저서 "사도영성" 이 발간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를 1995년부터 1999년도까지 박사논문이며 이에 대해 평생 증거 해 왔다면서 이 책의 핵심의 포커스는 첫째 "예수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있고, 둘째는 "예수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있다면서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영성을 전수 받으면 절로 그분들의 뜨거운 사명의식이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다. 또한 우리 개신교회는 변해야 산다고 강조했다. 개인주의, 기복신앙, 독단적인, 폐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하고, 또한 교파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출간된 저서 사도영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왕철 목사(한보협 상임고문)는 서평을 통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질타하면서 역사적 보수를 지향하고 출발했던 유럽의 기독교는 망했다고 했다. 따라서 사도영성운동으로 한국교회의 빛을 가져오는 것을 느낀다면서 사도영성이 출간된 것을 환영하고 보수원형을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한 신학생들을 향해 마7: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는 말씀을 전하고 생명 길로 가는 사도영성의 선지생도가 되어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종들이 되어 달라며 권면하고 축복했다.

이날 이범성 목사(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는 축사를 통해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회와 기도원 등에서 가장 많이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영성훈련인데, 하지만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교파는 많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현상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까닭은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이기주의적인 신앙,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신앙 등 잘못된 신학사상과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때마침 사도영성이 발간된 것은 이 시대에 큰 역사이며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허 식 목사(한경총 증경총회장)는 격려사를 통해 '사도영성을 집필하여 발간하기 까지 큰일을 했다며 축하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라하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도요한처럼 달려가는 사역자가 되며 보이는 것 없어도 들이는 것 없어도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고 했다. 이어 사도영성신학원 학장 홍항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사도영성신학원
☎ 02-2625-0982, 02-588-7955
학장 : 010-7585-1955
www.daun.cafe
다음카페 "사도영성신학원"

■ '나라와 민족위해 힘을 다해 섬길 것'포부 밝혀

CTS 감경철 회장, 국가조찬기도회 7대 회장 취임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이하 '국가조찬기도회') 제7대 회장 감경철 장로(CTS기독교TV 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한국교회 지도자 및 정 · 관계 인사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향후 2년 동안 국가조찬기도회를 이끌어갈 감경철 신임회장은 취임인사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의 귀한 사역에 동역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한국사회의 다툼과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개혁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 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설교를 전한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본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지속적인 기도운동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자" 고 말했다.



CTS 감경철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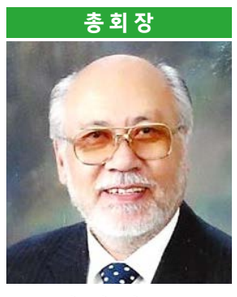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며 국가조찬기도회와 신임 회장이 그 중심에서 힘써 기도할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고, 이어 한국교회연합 양병희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힘으로 올 한해 국민들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축하했다.



이날 예배에는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홍문종 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을 비롯하여, 장종현 목사, 손신철 목사, 채의숭 장로, 노승숙 장로, 박래창 장로, 두상달 장로, 김영진 장로, 전용태 장로 등 정계 및 교계 인사들이 축사와 격려사, 특별기도, 축도 등의 순서를 맡았다.

한편 감경철 신임회장은 CTS 회장,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회장(12 · 13대), 세계한인방송협회 회장(2대)을 역임했으며 제5회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상(2010), 국민훈장 목련장(1996)을 수상한바 있다.

축 2015년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총회장

김정열 목사
중부노회

제1부총회장

강성희 목사
경전노회

제2부총회장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

서 기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

부서기

도요한 목사
서울중앙노회

회의록서기

임순종 목사
대전노회

부회의록서기

김재길 목사
부산노회

회계

박민규 목사
대한노회

부회계

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JCAL COLLEGE & SEMINARY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정	학과/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야간)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학력이나 성별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 위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반대학생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됨
신대원	신학과 (주/야간) 4학기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졸업 또는 이수한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 됨
통신신학		· 신학부 및 신대원 수료자 강도사 수위 후 목사안수

•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학력, 경력, 성별에 상관없음
• 계절학기를 활용함
• 여목제도가 잘 활용화 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 함
• 본 과정은 서울 본교와 각 지방 캠퍼스가 모두 동일함

• 천안개혁총회신학
학장 : 김 정열 박사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세교길 43번길 27-17 새예루살렘교회
전화 : 041-534-8765 010-4731-0391

• 대전개혁총회신학
학장 : 임 순종 박사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3-43 번지 2층 큰산성교회 內
전화 : 042-320-9193 010-6413-3456

• 부산개혁총회신학
학장 : 이 온우 목사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947-14
전화 : 010-5511-484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연락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13-3 총회장 : 김정열 목사(010-2695-0391) 서기 : 조재호 목사(010-6266-1331)

■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잠1:20-33)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일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이나 주위 환경 등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셔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 나귀를 통해서 혹은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일하시고 심지어는 지극히 적은 물매 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은 교회에서 일하실 일꾼을 부르십니다.(20-21)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훤화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본문에 나타난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잠언 8:17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이니라" 8:18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또 잠언 8:22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는 만세전부터, 상고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섬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진토의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이 세상 다양한 처지에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거리(20절) 광장(20절) 훤화하는 길머리에서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에서 혹은 성중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신 소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어떻게 부르셨는가? 본문은 두 가지 용어를 쓰셨다. ①소리를 높여 ②간절히

부르심에 아멘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가정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나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을 부



르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그의 인생말년에는 복되고 거룩한 선민의 근원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양치는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웅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훌륭한 사도로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3)왜 부르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일 까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①성령을 부어준다(잠1:23)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께로 나서 주님을 만나서 지혜를 소유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에서 처음 일곱 집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쓰시게 될 때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교회의 봉사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행6:3)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4)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①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잠1:24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 찌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교회의 일꾼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기 보다는 목회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거절하므로 심판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②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몸부림이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였 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며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양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목소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 제1장 「사도영성」 에 대한 이해(2)

제1부
사도영성 그 이론적 배경



지은이 홍 항 표
발행처 도서출판 아이네오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00-8 서원빌딩 512호
전 화 02) 3471-4526

「지난호에 이어」

그러나 우리가 성부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영성' (靈性)은 한자의 의미로 '신령한 성품' 을 의미하고,영어 spirituality' 는 '정신적인 사람' 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영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단 하나의 개념이나 경험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라틴어의 '영성' (spiritualitas)은 5세기 초 처음 제롬(Jerome) 서신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spiritus' 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1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용어는 '성령에 의한 삶' 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육과 영의 관계성이 지금처럼 극단적인 이원적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영성의 어원적 뿌리는 '호흡' 을 의미하는 'spiritus' 이다. 이것은 성서에서의 '영' 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호흡과 관련된 영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영성은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본질(principle)이다. 두 번째로 성령은 신앙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성서적 의미의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의 내부와 그것을 넘어선 현실적인 영적 교섭으로 이끌어지고 영적인 일들에 민감한 채로 붙들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영성은 종교적인 실제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신학자 '존 맥쿼리' (J. Macquarie)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바람을 넣어 생령이 되었듯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규명되면서 정리하여 있지 않는 바람과 같다." 고 하였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은 인간들의 삶과 역사를 창조하시는 역동적인 실제로서 인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세상 안에서 현존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위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 속에 '현존' (existence)하시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상 창조 시 다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영의 분배를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본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영성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확신에 따라
형성된다

결국 인간의 영적 본성은 인간의 영과 인간 속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영 사이에 계속적인 대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중생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주었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에서 알 수 있다. 9세기 수도사 '칸디두스' (Kandidus)가 '영성' (spiritualitas)의 반대 개념으로 '육체성' (corporalitas)과 '물질성' (materialitas)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영은 육체 또는 물질과 대립되어 쓰이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영성' 이란 '초월적인 신의 현존을 탐색하는 내적 감수성이나 또는 궁극적 실재와 접촉하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태도나 신앙, 실천' 을 의미한다. 또한 "기독교에서의 영성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이며 종교적으로 모호한 개념 대신에 '기독교적 생활' 이라는 개념이 현대 영성에서 중요한 의미로 떠오른다." 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성서에서 '영' 은 '호흡' 에서 유래되었고, '생명이 있다' 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인간의 의식 발달을 허용하셨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영적 피조물(영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영성에 대한 궁극적인 실체는 인간 자체이다. 기독교가 영성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에 반하여 그들은 인간 이상의 궁극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궁극적 가치란 결국 인간의 행복감으로 귀착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행복감으로의 귀착과 더불어 이들은 영성을 정신성이라고도 말한다. 이들에게는 영성의 궁극적 실체가 인간으로 귀착되기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정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영성을 어떠한 특수한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정신적인 심화와 확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영성' 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일반적 영성이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는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센' (Hansen)은 "영성이란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확신에 따라서 사는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삶의 스타일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영성의 두 가지 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성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확신 즉 가치관에 따라 영성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영성이란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사고의 체계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둘째, 영성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사고의 체계에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바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방식 즉 실천적 체계이다.

<다음호에 계속>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시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주후 2015년 1월 22일
지저스타임즈
발 행 인 정 기 남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 요한계시록1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5)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언론부흥협 부총재

〈지난호에 이어〉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신 존재로 하늘 위에 계시다가 마리아를 통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서 있었고 그 아들의 영에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육체를 입혀서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고 육체가 태어날 때 그때 영도 새로이 창조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에 합치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지금,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지금도 계시고"입니다.

"전에도 계셨고"는 내가 전에 있을 때에도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 아들의 영으로 있었습니다. 영적존재로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서 소리쳤습니다(욥 38:6-7).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할 목적을 택하셨고, 우리를 언제 육체를 입혀 보낼 것인가를 예정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분"은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어 아버지 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기업 · 영광을 상속받게 하시는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 영광을 나에게 입혀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마 16:27-28) 주 재림 때 순교한 자들은 부활체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주의 재림 때 상급적으로 첫째 부활하는 자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보좌 심판 때 부활하여 상벌을 받게 되므로 그때에 오시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변함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전에 있었던 나는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장차 오실 분과 관계되는 나는 부활체가 된 나입니다."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의 이 한 구절이 근원부터 마지막을 펼쳐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사도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세계의 근원부터 보고 누리고 있는 요한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계시록을 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완전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록을 계시받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하니까 일곱 영도 완전한 영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곱 영은 헬라어 원문에 일곱 영들로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곱 영들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사도행전 6 · 7장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판입니다.

행 6:5의"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안수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믿음의 영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합니다. 일곱 영들의 제일 첫 단계가 믿음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를 하늘의 것, 하늘 소망으로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일곱 집사들은 이러한 두 영들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스테판이 행 6:8에 또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까지 충만함을 받은 스테판에게 특별히 행 6:8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는 은혜의 영과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 6:10에"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다섯 번째 영으로 충만한 지혜의 영과 여섯 번째 영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는 영, 증거하는 영이 되고 있음을 계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 7:55에 스테판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 당했습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하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돌 맞는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환영하면서 금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영들입니다. 그러나 두 영들까지만 받으면 신앙생활 중간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환란 날에 순교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6 · 7장의 스테판에게 일곱 영들로 충만케 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의 비밀로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판 같이 환란 날에 순교할 자들인 계 1:1의 "그의 종들"에게 일곱 영들이 해당되므로 나타내주신 것입니다."그의 종들"은 환란 날 철장권세로 대언을 하고 또 100% 순교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성령을 일곱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6절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한 증인"-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구원과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증거(확증)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제 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은 마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땅"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계 1:1의"그의 종들"이 천년왕국 백성들의 왕이 되며, 또 그 왕들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종들을 왕들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만 왕들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신실한 증인이 되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증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제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을 왕들로 세우시고 주님이 왕들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고 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환란 날에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환란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고, 부활도 시키시고, 왕들로도 세우시고, 증거 할 때 신실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너희"는 위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6절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너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의 말씀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 속에 있는 몇 개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구원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산 제물이 된 것은 의로운 순교제물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순교제물까지 되게 하셔서 6절의"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때는 언제를 말씀합니까? 주님 재림 때 계 1:1의 "그의 종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 때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이 해당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시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의 재림 때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받고 있으니 감사 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목사코너(11) –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스테판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직분을 세우신 일곱 집사 중에 유일하게 스테판에게 있게 하신 특별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정점은 곧 순교로 끝나지요. 앞으로 이 은혜시대가 끝나고 있게 될 대환난 날에 순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 될 것이니 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테판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테판을 붙잡아다가 해하려고 공회당에서 대제사장이 심문하고 있는 살기등등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변론하나 그를 당해내지 못했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앞에서 '너희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하며 대갈일성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할례를 최고로 여기는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하는 것은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아주 최고의 모욕적인 말이지요.

또 계속 그는 증거합니다. "너희가 의로우신 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인 바로 살인자들이로다." 라고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이는 행 6:5에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 또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그가 행 6:8에서 은혜(믿음)와 능력으로 충만했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행 6:10 지혜와 영으로 말함(대언)으로 충만했다고 하였지요. 마지막으로 행 7:55 스테판이 일곱 번째로 또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성령 충만했지만 더욱 셋, 넷, 다섯, 여섯의 충만함 위에 일곱 번째 더하여 일곱 영들로 충만함을 인함입니다.

이 일곱 영으로 충만한 스테판이 결국 순교하였지요. 이는 크나큰 계시로서 계 1, 3, 4, 5장에서의 일곱 영이 나오고 이는 대 환난 날 순교자들에게 해당되고 또 그 날에 큰 권세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지요. 오늘 우리들도 순교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그러면 스테판같이 일곱 영들로 충만해야지요. 일곱 영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입니다.

이는 히 12:22-24의 하늘나라의 장자총회와 교회, 의인의 영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요, 그중 스테판에겐 순교 통해 첫째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자, 즉 장자총회의 장자의 복이 해당됨을 밝히 보는 것입니다.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하늘의 최고의 영광이지요.

또 스테판은 예수께서 오른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런데 왜 일어서셨나요? 이는 순교의 장엄하고 엄숙한 그 순간이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테판을 금면류관을 가지시고 그를 영접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아 7:8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스테판이 돌 맞아 운명하는 최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왜요? 저들의 영혼이 불쌍하므로, 또 저들은 나를 장자의 복,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 일꾼들이니 오히려 고맙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축 2015년 근하신년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세계주영광부흥사대표회장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회 주관)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성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에녹부흥신학원



http://kiea.onmam.com

중식 무료 제공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2시(학술원)
☞장소 : 등불교회. 예수능력치유센터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숭의1동 441-45)
☞문의 : (사무간사) 010-6778-0651

에녹 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 모집
수업일 : 매주 금.토 오전10:00부터~
몸찬양(무용,국악,찬양) 매주(목)오전10:00~

■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 통합 · 합동측 제외한 100개 장로교단 협의체 가동해

인천연합장로교총협의회(연장), 신년하례 감사예배 드려

인천시 연합장로교총협의회(연장)는 1월 13일(화) 오전 11시 인천기독교회관 7층 대강당에서 2015년 신년하례감사예배를 드렸다.

서상운 목사(인기총 범죄예방부위원장)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정다이 목사의 대표기도, 윤종상 목사의 성경(마12:28) 봉독, 서울신대 4년 박하슬 청년, 영광교회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날 인천시 연합장로교총협의회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인기총 공동회장 / 영광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라는 설교를 통해 "인천은 한국기독교와 부흥의 발상지" 라면서 "돈과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만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장로교총협의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새로운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 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협의회로, 또한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루디아목사의 특별연주, 김태경 목사(성서총회), 윤상현 의원(세누리당) 등이 축사하고,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새누리당), 박우섭 청장(남동구)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이어 박삼열 목사(인기총 증경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김태경 목사는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장로교회로,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또한 이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재정비해 서로 섬기고 높이고 나누며 많은 이들을 전도하게 되길 바란다" 고 했으며, 박무평 목사는 "연장교단은 교단과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하고 "오늘 조강수 목사의 설교대로 우리가 성령만 의지해 나아가길 바란다" 고 했다. 이와 함께 성경모 목사는 손신철 목사(인기총 총회장)를 대신하여 인사말을 대독했다.

또한 특별합심기도에서 피가연 목사(예장총회장), 이진희 목사(총신재단이사장), 홍선숙 목사, 김진매 목사가 각각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인천시의 발전과 복음화' '인기총과 연장총협의회' 를 위해 기도한 후 박무평 목사가 조강수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사무총장 이흥선 목사(인천제일교회)가 광고를, 최길춘 목사(창신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담임)는 연장총은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내 통합 · 합동측을 제외한 모든 장로교단의 협의체로, 100여 교단 1,200여 교회가 소속돼 있다면서 연장총이 좋은 뜻을 갖고 발족은 되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직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활동해 왔다하고 2015년부터는 협의체를 가동해 별도로 참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기총은 소속 교단을 7개 군으로 나눠 순번제로 회장을 선출하며, 연장은 그 중 가장 교회 수가 많은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장 조 목사는 1.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2.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영광교회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다. 연장은 적은 교단들로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2개월에 한번씩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어 기도회를 가진 후 식사를 대접하고 선교비를 드리고 어려운 목회자에게는 쌀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일을 위하여 년 중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대표회장 조 목사는 지난 30년을 기도해온 결과 금년 초부터 주님이 감동을 주셨고, 몇 칠 안돼서 이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 일을 위하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기에 인천시 연합장로교총협의회(연장)와 인천복음화를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포부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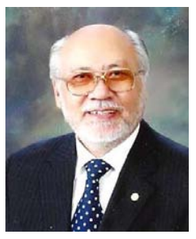
이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중점적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100개 교단, 1200교회 중에서 600교회만 모여도 기도하고 세미나를 통해 주의 일에 앞장선다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나님의 일꾼으로 총회와 노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자

예장(개혁)총회 평안교회에서 신년하례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총회(행9:31)라는 표어아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가 1월 5일 정오 12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4934 서울평안교회(김종환 목사)에서 2015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임원회를 개최했다.

총무 조재호 목사의 인도로 신년하례 감사예배가 시작되고 부산신학장 정석진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임순종 목사가 성경 고전 4:1~5절을 봉독하고 전국 노회장들의 특별찬양이 드려진 후 총회장 김정열 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김정열 총회장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1. 자기 신분이며, 2. 미래에 주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선물인데 이는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미래에 받아야할 은혜가 있는데 이는 상급인데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며 이는 상급이라고 했다. 구원과 상, 이 둘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상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고 했다.



성경에 상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다섯 가지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나오는데 1. 빌4:1절 '기쁨의 면류관' 2. 의의 면류관 딤후 4:8절, 3. 영광의 면류관 벧전 5:4절, 4. 썩지 않는 면류관 고전 9:25절, 5. 계 2:10절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일꾼이 있는데 1. 충성하는 일꾼이 있고, 2. 원망과 불평을 가진 일꾼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교회에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저 감사하면서 원망도 불평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일꾼과 삯군이 있는데 1. 삯군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다. 2. 일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드리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다. 고 했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것은 충성인데 오직 한결같은 변함없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총회를 위하여 노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자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노회 윤글로리아 목사의 봉헌찬양과 총회 회계 박민규 목사가 봉헌기도를, 증경총회장 최평욱 목사가 격려사, 부총회장 장한국 목사, 수도노회장 김종환 목사가 축사하고, 총무 조재호 목사의 진행으로 증경총회장 외 임원들, 노회장들 순으로 새해 복 받는 삶을 갖자며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표어제창을 "희망찬 새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총회!" 라고 하고 증경총회장 이온우 목사 축도로 2015 신년하례회를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 더불어 함께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교회

창립43주년기념 신년축복 부흥성회 개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사랑' 과 '섬김' 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담임 이수형 목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최석봉 목사 초청 신년축복부흥성회" 를 1월 25일(주일)~28일(수)까지 개최한다.

순복음춘천교회는 1972년 4월 3일 춘천 효자동 18평 2층에서 김주환 목사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으며 이듬해 팔호광장 인근으로 성전을 이전했다. 2002년에는 만천성전으로 이전하고 2003년에는 혜민 사랑의 집(대표 조남진 장로)을 개관하였으며, 2004년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시작으로 두란노 어머니학교, 두란노 부부학교를 잇따라 개설했다.



1월 25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번 성회는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수14:12)" 란 주제로 최석봉 목사(서울대망교회)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나눈다.

이번 성회를 인도할 최석봉 목사(서울대망교회)는 인류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한국복음화운동본부 해외총재로 섬기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살리기 목회자세미나(300회 이상), 국내외 많은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있다.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는 "신년축복부흥성회를 통해 성도들과 주님 사이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15년 祝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주제 :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노회장

장 한 국 목사

서기

박 민 규 목사

회의록서기

박 명 자 목사

회계

유 순 옥 목사



'마라나타! 2015년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대한노회
회원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 일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5년도 목표
"띠 띠고 네 등불을 밝히라"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사무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대림프라자, 고흐5층)
홈페이지 : http://jlcn.kr ☎ 031)424-7612, H.P 010-4436-7060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제목: 진리를 사십시오
성경: 잠언 23:23 찬송가 358장
본문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합니다. 잠언 4장 5절에서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팔아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지혜와 진리를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
성경: 잠언 23:24-25 찬송가 431장
본문 말씀처럼 의롭고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악하고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양육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그 수고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상되어질 것입니다.

제목: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 잠언 23:26 찬송가 311장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에서처럼 아들이 자신을 깊은 산 속에 고려장하러 갈 때에도 아들이 돌아갈 길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그 분께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행을 피하십시오
성경: 잠언 23:27-28 찬송가 252장
본문의 '음녀' 는 의도적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이성간에 관계에 있어서 부도덕하게 유혹해오는 음행도 피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도 음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교훈을 즐겁게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음행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제목: 술을 멀리하십시오
성경: 잠언 23:29-35 찬송가 289장
본문은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은 슬픔과 재앙, 다툼과 상처를 가져다주고 마음에 완악함과 패역함을 생기게 하고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며 불성실하게 만들게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을 멀리하십시오. 음주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악인의 형통
성경: 잠언 24:1-2 찬송가 94장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설사 지금은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고 징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나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제목: 삶의 건축
성경: 잠언 24:3-4 찬송가 204장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치밀한 구상과 계획,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건축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건축하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으며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목: 영적인 전략
성경: 잠언 24:5-6 찬송가 348장
미련한 자는 싸울 때 눈에 보이는 무기나 힘만을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강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며 거기서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랑받기 위해서는
성경: 잠언 24:7-9 찬송가 212장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한 거만한 자는 동시에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처럼 미련하고 거만한 자는 미움을 받게 되지만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제목: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경: 잠언 24:10 찬송가 336장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라 해도 육체가 쇠약해지면 영혼까지도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가운데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연약해지고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방패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분께서 일어날 힘을 주시며 피해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목: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성경: 잠언 24:11-12 찬송가 498장
본문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육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북한 동포들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속히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서 악한 세력에 짓밟히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이 놓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북한 선교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제목: 꿀과 같은 지혜
성경: 잠언 24:13-16 찬송가 408장
꿀은 사람의 입에 달콤하고 몸에도 유익을 줍니다. 그처럼 지혜도 사람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족감을 줍니다. 꿀이 그 꿀을 먹는 자에게 힘을 주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성도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며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지혜를 얻고자 끊임없이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진우 목사
에복교회 담임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사장
라이즈월드 미션 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백석TV, CTS 칼럼리스트

제목: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십시오
성경: 잠언 24:17-22 찬송가 95장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어뜨리실지라도 그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원수의 넘어짐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의 형통함을 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통해보일지라도 악인의 장래는 곧 멸망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육간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공정한 판단
성경: 잠언 24:23-29 찬송가 510장
본문은 재판할 때 시비를 정확히 가려야 하고 당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거짓 증거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선과 악을 공의로 판단하고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칼럼

통일의 문을 열자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남북 분단의 70년의 해를 맞았다. 6.25전쟁이 지난지도 65년이 되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6.25전쟁은 우리 민족의 가장 뼈아픈 역사이다. 남과 북은 영원한 대적국가 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민족이다. 그동안 우리는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발전은 국민결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사회로 가고 있다. 정치는 여·야의 대립으로 파벌정치로 일관하고 있으며, 좌파세력들은 모든 분야에서 반기를 들고 앞장서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 하면서 남북통일을 위한 통일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중에 있다. 통준위는 북한과의 통일 접촉에 앞서 공산주의를 알아야 한다. 통일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인격체로 만들어 놓아야 가능한 것이다.

경상도의 언어가 다르고 전라도의 언어가 다르다. 또한 충청과 경기도의 언어가 다르다. 지역별로 억양이 다르고 사투리가 다른 것이다. 아무리 표준어를 가르쳐도 그들의 억양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언어통일도 어려운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통일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공산주의는 이론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선전선동이론과 실천이론인 것이다. 선전선동이론은 대외적으로 대화와 협약과 체결을 하며, 실천이론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로 어떠한 협약을 한다 하여도 유사시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오늘 북한은 핵무장을 하면서 대국과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 그들은 핵을 생명으로 알고 힘을 과시 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남쪽을 가지려는 광분에 쌓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에 앞서 국민모두가 철저한 반공사상을 가져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반공정신을 가르치어 정신무장을 시켜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반공정신이 없다면 통일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통진당 해산과 더불어 그들은 더욱 결속하고 있다. 국민모두가 좌파들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 특별히 공안당국은 혼란을 조성하는 좌파조직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토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있어, 국가 모든 조직 기관을 하나로 묶어 철저히 반공정신으로 무장시켜 놓고 통일의 문을 조심성 있게 노크해야 할 것이다. 지극히 어려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한편 정치적으로 국방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력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이 있어야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히스기야 현상을 겪고 있다.

분단 70년을 기하여 통일의 문을 열자. 북한의 냉기를 서서히 녹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온풍을 보내 보자. 모진 한파 속에서는 따뜻함을 원하는 것이다.

祝 2015年 謹賀新年 새해 새소망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장로 : 신 호 균
담임목사 이 이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혜망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홈페이지 : www.ezob.org 이메일 : usc2810@hanmail.net
전화 : 02- 414 - 1191 집 : 02-423-5154
담임목사 : 박용숙 목사 (010-3775-5154)

2014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범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 요 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 경인, 호남 지회원 30명의 열정에 덕유산 칼바람을 뚫고 1,614m향적봉 정복

대한기독사진가협회 회원들 2015, 신년 정기 출사

대기협(대한기독사진가협회-이하 대기협, KCPA, http://www.christianphoto.co.kr/,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사진가 모임)이 2015년을 맞아 정기 출사에 나서 11일부터 1박 2일로 덕유산(전북 무주)에서 30명 회원들과 함께 매서운 칼바람을 잠재우며 마침내 덕유산 향적봉을 정복했다.

대기협 이사장 엄영수 목사(대광교회)는 1박 숙소인 토비스 콘도미니엄에서 있었던 환영사에서 "기독교 사명인 영혼 구원과 기독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 1,400여명 회원들과 국내외(7개, 해외) 지부와 함께 사진과 영상으로 사역할 수 있어 행복하다" 며 "2015년 새해에는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며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인지회(지회장 윤종성)와 호남지회(지회장 김윤경)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통편은 서울(윤종성 대표)과 안양(엄영수 목사), 용인(김영민 목사)에서 협력하고, 호남지방에서는 김윤경 목사(팔복 중앙교회)가 차량 봉사로 수고해 주었다.

오후 6시경 무주 현지의 숙소에서 만남으로 인사와 함께 담론으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윤한옥 목사(만안제일교회)는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최정희(전주 시천교회) 회원의 나이는 거꾸로 가는지, 30대 초반의 애띤 모습은 여전했다. 김종심(행사 회계)씨는 "함께 해준 모든 회원들에게 고맙다" 고 인사하며 숙박과 식사, 간식, 생수 공급 및 곤돌라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해 봉사했으며, 황매란 회원(대광교회)도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어 고맙다" 며 반갑게 환영 해 주었다.

12일(월) 오전 7시, 숙소에서 퇴실한 후, 무주의 '시골집' 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곤돌라가 작동하는 09시를 맞춰서 덕유산리조트에 도착, 드디어 산행이 시작되었다. 일기 예보를 보니 맑은 날씨에 기온 영하 11도, 습도 74%가 나왔다. 상고대를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스키장을 이용하는 인파와 함께 정상에 오르기를 30여분. 세찬 칼바람과 함께 내렸던 눈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윤경 목사(팔복중앙교회), 김종욱 목사(전주 대은교회) 등이 엄동설한 겨울의 완전 무장으로 복장을 꾸리던 모습이 아련하게 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내렸던 눈으로 인하여 아이젠 착용은 필수가 되었다. 1,614m의 향적봉 정상을 향해 오르니 10시가 조금 넘었다.

윤종성(윤 스튜디오 대표, 코리아포토클럽.com) 지회장과 이상중 목사(새용진교회)의 안내로 덕유산 곳곳의 사진 포인트를 찾아 나섰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거목이 있는 곳과 운무 장관이 펼쳐진다는 명소, 희한한 모양의 거목이 있는 곳, 상고대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다니며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정상에서의 단체 사진에서 빠진 회원들이 속출하기도 하였다. 2시간 남짓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 덮힌 산 위에서의 활동으로 뛰어 다녔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12시 40분 하산하여 '산아래가든' 에서 '갈치 전골' 로 중식을 하고, 식사하는 광경을 김윤경 목사(팔복 중앙교회)의 삼양 12mm 광각 렌즈의 위력을 맛보게 된다. 아울러 엄영수 목사(대광교회)의 선물인 2015년도 '달력' (이슬 사진과 아름다운 글씨체로 제작)과 김영준 목사(세린교회)가 제작한 우천 시 촬영에 도움이 되는 도구인 삼각대 거치식 '우산 받침대' 를 나눠 주었다.

식사 후 바로 서해안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으로 달려갔다. 바다와 운무 가운데서 태양이 지고 있는 석양에서의 꽃지섬, 할미섬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이다. 해가 지니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오후 5시 35분, 드디어 바다 밑으로 태양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켈빈도 7천에서 1만 사이, 심도는 마이너스 3 옵티머스' . 윤종성 지회장의 사진 촬영에 대한 명쾌한 지식 전수와 함께 촬영에 임하였다. 하지만 바라던 오메가 모양의 극치는 재현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마지막 촬영 장소인 간월도로 향한다. 현장에 도착하니 오후 6시 30분. 물 떼가 만수가 되는 시간은 오후 8시.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별미 영양굴밥으로 저녁 식사를 한다. 이상철 장로(하늘땅, 새말전원교회)와 이기숙 권사(새소망교회)가 수고를 했다. 캄캄한 밤. 조명이라고는 멀리에 있는 가로등 불빛뿐이다. 거리는 300m 남짓. "벌브 모드 상태에 셔터 스피드는 200초로 설정하라" 는 윤종성 지회장의 경험에 의한 지식 노하우 전수는 묘미에 진수를 더한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야 말로 상상도 못해 본 촬영의 실제 상황에 임해 본다. 사진의 결과물을 확인할 때마다 부듯함과 성취감을 맛보는 출사의 날이 되었다. 서울에 도착하니, 밤 10시 20분, 윤종성 지회장의 헌신으로 대기협의 행사는 마무리 짓게 된다.

■ 출소이야기

소망엔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내게 있어 교도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련' 이었다.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만큼의 조그만 충격이자 고통이었다. 난 예전에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다. 나름대로 잘나가는 사람이었고, 주위의 부러움과 존경받기를 바랬던 사람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듯 '감옥' 이라는 곳에 대해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도소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시련' 의 연속이었다.

특히 교도소 특성상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행동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까지도 제한되게 만들어 버리는 곳이다. 그런 교도소를 사람들은 '교정교화시설' 이라 부른다. 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교도소는 감옥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저지른 죗값으로 일정기간 갇혀 지내는 곳, 이곳에서의



소망교도소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에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2015년 직업훈련 입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종목으로는 기능사 일반훈련과정인 이미용, 산업설비, 커피바리스타 등으로 3개 직종, 총 52명이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입교식을 통해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꿈이자 목표는 단하나! 가석방을 받아 집으로 가는 것!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였을까? 1년 6개월이라는 긴 재판기간동안 나는 너무나 지쳤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곳 소망교도소에 지원하여 오게 되었다. 소망에서 생활한지 3주가 지났다. 난 솔직히 이곳을 교도소라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 다른 수용자들도 나와 같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소망' 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소망'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참 잘지었다는 생각을 한다. 난 더 이상 교도소의 생활을 '시련' 이라 하지 않고 '도전' 이라 생각한다.

내 생활과 생각은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다. 물론 현실의 몸은 갇혀 있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국영교도소보다 더 엄격하기도 하다. 하지만 소망 이곳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다른 시설에서의 내 생활과 생각은 획일화되었고 수동적인 생활의 연속일 뿐이었지만 소망에는 엄격한 제한과 규정 속에서도 내 의지가 존중되는 '선택' 이 있다. 여기는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다. 무언가 역동적이고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있다. 그렇기에 나에게 이곳의 삶은 '도전' 으로 받아들여진다.

난 지난 10여년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듯,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 같다. 더불어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해야겠다는 '의지' 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고 있다. 난 여기 와서 5일만에 성경필사에 도전했다. 성경을 내 글씨로 하나하나 옮기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수용자들끼리 구역예배와 성경공부에 힘을 쏟고 있다. 맞다! 이곳 소망은 교정교화시설이 맞다고 백퍼센트 자부할 수 있다.

커피 바리스타, 악기반, 합창단, 기초인성교육, 기타 등등 교육과정과 취미활동과정은 감탄을 금할 rfl이 없다. 교육과정을 거치며 지난 시간에 대한 미안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전국 교도소에 이런 동일한 교육이 실행된다면 큰 변화가 생길 것임을 확신한다. 물론 절대 소망과 같진 않을 것이다. 소망엔 하나님이란 든든한 밑거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요문화행사는 그 어떤 교도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소망의 최고의 무기이자 강점이다. 사회에 있을 때도 누리기 힘들었던 여유와 감동을 안겨준다. 말이 필요없다. 감동 그 자체다. 정말 이곳 소망에는 무엇인가 있다.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는 그 무언가! 각각의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를지 몰라도 공통된 한가지! 크진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

난 오늘도 이곳에서 '도전' 을 한다. 앞으로 출소 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소망의 형제들이라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소망 공동체' 라는 드든한 응원군을 얻었고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싹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祝 2015年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EL : (061) 272-4908, FAX. (061) 278-0693
남악예배당 : 목포시 남악2로 52번길 남악크리닉A동 301
TEL : (061) 287-0692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화정농협 5층) 전철3호선 화정역 1번출구
TEL 031-974-7091

피종진 목사 1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1(목)	오후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2(금)	오전	국민조찬기도회(국민일보) ☎(02)781-9732 주최: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총재 고충진 목사)
2(금)	오후	경기도 광주교회(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4(주일)	오후	광명 대한교회(조주원 목사) ☎(02)2617-7009
4(주일)	오후	서울 글로벌축제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5(월)~7(수)		당진 실로암교회(오충만 목사) ☎ 010-2203-0691
8(목)	오전	서울 AW컨벤션센터,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8(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9(금)	오전	천안 성실교회(서재철 목사) ☎(041)622-2460
12(월)	오전	부천 갈보리교회(조예환 목사) ☎(032)657-5177
12(월)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방경현 목사) ☎(031)947-0091
12(월)~14(수)		김포 지구촌교회(전순용 목사) ☎ 010-5600-2756
14(수)	오후	안산 예향기도원(배재현 목사) ☎(031)411-4902
15(목)~16(금)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02)555-0712
17(토)	오후	서울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02)3411-9191
18(주)~21(수)		대전 세민교회(류재이 목사) ☎(042)635-6691
22(목)	오후	서울 샘이깊은교회(박병득 목사) ☎(02)826-9188 주최: 무지개선교회(대표회장 이옥자 목사)
23(금)	오전	인천 삼산제일교회(이사무엘 목사) ☎(032)511-3001
26(월)~28(수)		충주금식기도원(담임 고충만 목사) ☎(043)853-3900

■ 2월 23일~25일까지 청원진주초대교회에서 개최

2015 아바드리더컨퍼런스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



2015 아바드리더컨퍼런스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 가 오는 2월 23일~25일까지 청원진주초대교회(담임 이경은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5 아바드리더컨퍼런스에서는 '위대한 순종-아브라함' 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컨퍼런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아바드리더컨퍼런스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어 올해도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바드리더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처음 시작됐다. 성경을 보면 처음 다윗에게 모인 무리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삼상 22:2). 하지만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종의 요구대로 행하는 용사가 되었으며(대상 11:15~19), 더 나아가 다윗과 더불어 의논하는 장수로 쓰임 받게 됐다(대상 13:1). 이런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 라는 슬로건으로 해마다 아바드리더컨퍼런스를 개최해 용사를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교회는 잘 돼야 합니다. 모든 주의 종은 잘 돼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은 잘 돼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경은 목사의 열망을 담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이경은 목사의 교회 성장 노하우와 열정적인 강의, 용사가 된 사모, 부교역자, 성도가 펼치는 감동의 퍼포먼스와 아바드리더시스템 적용 사례 및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주일대예배를 그대로 재현하는 축제의 밤 등 환희의 기독교 축제로 담아내고 있다. 그 동안 아바드리더시스템을 교회에 적용한 목회자들은 이경은 목사에게 수없이 이런 간증을 한다. "성도들이 변한다. 교회 재정이 풍부해진다. 교회에 원망불평이 사라진다. 설교 고민이 해결된다. 교회가 부흥된다" 는 것이다. 이경은 목사는 2015년에도 자신있게 아바드리더시스템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leader.eduabad.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팩스(055-758-8291)나 이메일(abad0635@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아바드리더시스템이란?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쓴물이 있다. 이 인생의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라고 이경은 목사는 확신한다. 이에 이경은 목사는 성경을 통해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잘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바드리더시스템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질병의 쓴물, 직장의 쓴물, 사업장의 쓴물, 물질의 쓴물, 가정의 쓴물, 자녀의 쓴물, 남편의 쓴물, 아내의 쓴물, 교회 생활의 쓴물, 기도 생활의 쓴물 등 인생의 쓴물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교역자를, 사모를, 성도를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용사로 세우는 내용이다.



용사에 대한 슬로건으로 이경은 목사는 "가장 큰 용사는 사모입니다. 가장 힘을 주는 용사는 부교역자입니다. 가장 충성된 용사는 성도입니다" 라고 외친다. 아바드리더시스템 교육을 받으면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이 말씀 안에서 해결 되고, 교회 안의 원망불평이 사라지며,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자녀가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섬기는 삶을 사는 용사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처럼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바드리더시스템은 성도를 용사로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시스템이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 있게 하며 자녀를 성공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아바드리더시스템은 전도, 아바드 새가족반, 아바드 성장반, 아바드 핵심반, 아바드 청지기반, 아바드 비전반, 아바드 용사반, 아바드 사역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아바드리더시스템 온라인 교육원에 수강 신청하면 아바드리더시스템 9기로 등록된다. 그리고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2015 아바드리더컨퍼런스(위대한 순종-아브라함)' 와 3월부터 8월까지 청원진주초대교회에서 진행되는 아바드리더시스템 1차부터 6차까지의 세미나(장소: 청원진주초대교회, 1644-3927)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홈페이지 주소 http: / / leader.eduabad.com)

2015 아바드리더시스템 전국순회세미나 소개

아바드리더시스템 전국순회세미나는 아바드리더시스템을 적용한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연합회를 구성하여 이경은 목사를 초청하는 무료세미나이다.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홍보부터 진행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각 지역 연합회가 헌신하고 있다. 매년 전국순회세미나에는 4,0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세미나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열정이 살아나며 비전을 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2015 아바드리더시스템 전국순회세미나의 주제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이며, 주보를 지참한 모든 목회자에게는 아바드성경, 아바드 핵심반 교재를 선물로 증정한다.

(점심식사 제공)

■ 사이비 이단과 자유주의를 견제, 희망찬 새해 전진을 다짐

양정섭 목사, 신년하례회 3개 단체 연합예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사단법인한국개신교교단협의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 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2015년 1월 5일 11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시 기념관에서 가입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모여 신년하례회 예배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진행돼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도와 예장개혁총회 김태석 목사가 특별찬양하고, 예장 21c성령총회 총회장 강매환 목사가 창 1:26-30절을 봉독하고, 개혁중창단의 찬양과 예장정통총회 김병섭 목사가 색소폰연주를 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우리 모두는 반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서 이겨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비 이단과 자유주의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돼,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라임을 확신하고 증거하고 바른 교육과 성령 충만한 삶과 능력으로 복되게 살되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만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역사 속에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도총회 총회장 김성한 목사가 기도하고, "3개 단체인 사단법인 한기협, 세교연, 한개협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 임정태 목사가 기도하고,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기도한 후, 3개 단체장의 인사말씀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전하고 광고한 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신년하례회를 성대하게 마쳤다.

■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국세청이 명단 공개

교회들도 정확한 자료와 장부를 비치하도록

국세청은 지난 18일 처음으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93개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단체 2곳, 의료단체 1곳, 기타 단체 6곳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 단체가 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밝혀진 93개 종교단체 가운데, 불교계가 89개이며, 기독교계는 4개이지만, 한국교계 전체 주소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명단들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를 '종교단체' 로 몰아가고 있어, 한국교회 전체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원하면, '기부금(헌금) 영수증' 을 발급해야 할 상황인데, 교회들이 헌금 장부를 기초로 정확하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우선 성도들이 낸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일반 직장인(월급을 받는 경우)은 1월말까지 발급받게 된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3월말까지 신고하게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월말까지 신고하여, 각각 시점이 다름을 알아야 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교회는 매해마다 6월말까지 국세청 양식에 따라 영수증 발급 건수와 얼마만큼 금액의 영수증을 발부했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5%의 '표본조사' 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국세청의 발표는 이 표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교회가 기부금(헌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헌금) 영수증 발급 대장' (臺帳)을 반드시 5년 동안 비치해야 한다. 즉, 각 헌금별(십일조, 감사, 건축, 주일헌금, 기타)로 구분하되, 한 개인에 대한 일련번호를 동일시하여 만들어서, 헌금 날짜, 금액,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불이익은 물론, 종교 단체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합산' '부부합산' 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투명사회' 로 가기 때문에 교인 개개인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을 발행함에 있어서도, 교회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한 증빙서 발급과 대장 비치가 필수적이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함으로 우리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축 길 하 신 년

경인백석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소명의식이 확실합니까? 속히 오십시오
※ 학문의 시간을 놓쳤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 세계를 무대로 활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학생모집 범위는 이단을 제외한 초교파입니다.



학장 정기환 목사
(D.Ed., Th. D.)

●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백석총회 인준신학교로서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 (사)기독학술원 이사장
• 국제기독교지도자협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 캐나다크리스천대학교교수
•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 〈저서〉조직신학개론 외 25권

●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총회인준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1통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신앙면접

● 특전

· 본 교단은 여목사 안수제도가 있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학과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8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원격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학과	1~3년	타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 이번 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역사신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김남수교수(교회성장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소정교수(음악사):(D.S.M)(獨)Goettingen National Universirsity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강석현교수(신약신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실천신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마호인교수(성경신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역사신학):(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무용학과 : 김희선, 조은희, 최재옥, 전병희교수 외

경인백석신학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27(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 : 010-2956-9191, 050-5555-9191
E-mail : Keyone209@hanmail.net
· 교학처장 : 김남수 목사 · 학생처장 : 박준민 장로
· 서무담당 : 이인애 · 교무담당 : 전병희

■ 축복의 날개를 활짝 열어 비상하며 꿈을 이루는 웨신총회

"2015 표준웨신 신년하례감사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백악관 웨딩문화원 8층에서 2015 표준웨신 신년하례감사예배를 드렸다.

부총회장 정일량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서기 전복수 목사가 기도를, 원풀러스원의 워십찬양단의 특송과 회의록서기 신동근 목사가 성경봉복(에스겔 47:1~2절)하고,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그래도 꿈을 꾸자" 라는 설교했다.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지난 한 해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끔찍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다면, 2015년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했다. 부시의 아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 그 시대상을 설명하면



서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성이 파괴되고 처절하게 망했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았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절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백성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고,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스겔선지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서 나라를 잃고 포로된 처지요, 도와줄 우군도 없고,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인대도 에스겔은 우리에겐 꿈과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마침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회장은 꿈을 접는 자가 아니라 대망의 새해는 더 큰 소망을 갖고 꿈을 꾸자고 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꿈을 꾸며 이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를 전하자고 했다. 영적인 눈으로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죄악의 포로에 시달리고 있고, 복음이 전혀 먹히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때 우리는 그래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고 표준웨신총회로 꿈을 꾸고 2015년을 통해서 축복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총회로, 꿈을 이루는 웨신총회가 되자며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회계 양덕심 목사가 봉헌기도를 하고, 증경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축사에서 '깨달음으로 2015년을 심방도, 설교도, 가정도 재미있고, 영도, 육도 건강하며, 물질도 자녀도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한동숙 목사(81)는 '새해에는 바르고 정직하며 슬기로운 총회가 되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목회자가 정직하게 사역하고 산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리더 할 수 있는 웨신총회가 될 것을 믿으며,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하하고 권면했다.

이와 함께 신언창 총무는 광고에서 '꿈과 사랑으로 시작하는 2015년 한 해가 우리 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인사하고 학교와 총회를 위해, 총회와 학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총회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기도로 협력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직전총회장 이홍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하례식은 신 총무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유동효 목사의 축가와 총회 자문위원, 임원, 노회장 순으로 케이크커팅을 하고 총회원들의 하례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총회장과 임원들은 자문위원들에게 신년새해 건강하시라며 금일봉을 전달한 후 자문위원들은 총회 임원들과 총회원들에게 새해 건강하고 섬기는 교회들마다 부흥되라며 축복하고 표준총회로서 더욱 발전하는 총회와 노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한서노회장 고재만 목사의 오찬기도로 3부 오찬에 들어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2015 표준웨신 신년하례가 막을 내렸다.

■ 연합회의 정체성에 따라 연합단체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헌신을 다짐

"인천 인보총 제23대 대표회장 취임 정일량 목사"



인천광역시 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는 제23대 총회장 및 임원 이.취임감사예배가 지난 1월 13일(화) 오전 11시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71 소재 향기로운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안태준 목사(상임회장 / 인천등대교회)가 1부 예배를 진행하고 증경총회장 김길수 목사(주예수사랑교회)가 기도하고, 회계 박준석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성경(고전 10:31~33)봉독을, 향기로운교회 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증경총회장 고창곤 목사(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고창곤 목사는 '지구에는 남극과 북극이 있고, 제 3극인 8.850m가 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예를 들면서 인천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총회장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인천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에 교회가 1.700교회가 있는데



총회장 한번하려면 1.700년이 걸려야 차례가 온다고 하면서 총회장에 선출되고 취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이날 이임하는 22대 총회장 지개진 목사(새에덴교회)와 23대 총회장에 취임하는 정일량 목사(향기로운교회)를 향해 축하하고 주어진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며 기원' 했다.

이어 공동회장 김민교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사회로 2부 총회장 취임식에서 공동회장 박수병 목사(대흥교회)가 기도를, 제22대 총회장 지개진 목사의 이임사에 이어 총회장 정일량 목사가 직전총회장 지개진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아울러 서기 천재홍 목사(주일교회)가 총회장 정일량 목사의 이력을 소개하고, 정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로마서 1:1절을 인용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만날 수 있는데,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다. 그 바울 사도가 고전 1: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10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이라' 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빌2: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 연합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 되어 기도 하며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연합하는 교단들이 되어 가기를 소망한다며 인사했다.

이날 직전총회장 지개진 목사는 총회장 정일량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꽃다발 증정이 이어졌다. 아울러 증경총회장 전석도 목사(원로)의 권면과 증경총회장 최완수 목사(가좌제일교회), 증경총회장 신덕수 목사(한일교회)가 격려사를, 증경총회장 박준택 목사(하늘샘교회), 증경총회장 고재운 목사(양문교회), 예장웨신총회 총회장 이영풍 목사(빛 교회), 대한노인회연수구지회장 조규태 지회장 등이 축사했다.

또한 사무총장 곽두희 목사(인천제일교회)의 광고 및 내빈소개를 하고, 공동회장 진유진 목사(인천중앙교회)의 식사기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교재를 나누었다.

한편 이날 인천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제23대 총회장에 취임한 정일량 목사는 총신대학교 졸업, 웨퍼드대학교 신학과 졸업, 총회(합동) 목회대학원 졸업,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과정 중, 잃은양찾기 운동본부 총재, 예장웨신총회 부총회장, 향기로운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 15:58).

新謹年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예배안내

주일낮예배(1부)	: 오전 09:00	부 목 사	: 이주홍
주일낮예배(2부)	: 오전 11:00	협력선교사	: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주일찬양예배	: 저녁 06:30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헌 김준현 고재훈
수 요 예 배	: 저녁 08:00	심방전도사	: 원명숙
새 벽 예 배	: 오전 04:30	교육전도사	: 이민규
금요철야예배	: 밤 11:00	전 도 사	: 양승숙
주일학교예배(주일)	: 오후 1:00	성가대장	: 심재헌
학생부예배(토)	: 오후 4:30	지 휘	: 박성진 왕소정
청년부예배(토)	: 오후 7:00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 가좌4동 4-24) ✦ ☎ 032) 575-1654 / FAX: 032)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